



광남일보



주간 제798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음력 10월 26일)

“특정정당 독점” 틀 깨야 정치 활력

6·3 지선, 선거제도 개편되나

- ①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
- ②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 ③ 지방의회 지형 변화 되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나눠 먹는 정치 지형을 바꾸고,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

양당 구조 고착화...무투표 당선인 등 부작용 속출 선거제도부터 바뀌어야 지방자치·지방분권 가능

다. 특히 호남은 지역 특유의 더불어민주당 독점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본보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추진단 가동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을 살펴보고,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방의회 지형 변화 등을 기획으로 연재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선거제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장기간 의석을 양분해 온 거대 양당 이외에 제3당의 지방의회 입성도 가능해지면서, 지역 정치 지형의 대변화도 점쳐진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간 불비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추진단’을 꾸려 제도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 정당이 주장하는 제도 개편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핵심이다.

현재 광역의회 대부분이 한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인 반면 기초의회는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의 핵심은 광역의원 선거를 기존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도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다.

광역의원은 직접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당의 투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확보한 명부 순번으로 배분되며, 기초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정수를 3~5명으로 확대하고 최소 의원 정수를 9명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

이 같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한계인 승자독식 구조에서 사표를 줄이고 정당 지지율을 보다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 세력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량이 마지막 매몰자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 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4명이 모두 수습되면서 경찰과 노동당국의 원인 규명 수사가 본격화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매몰자 4명 수습

경찰·노동청, 원인규명 수사...원청·하청 책임 추적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4명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모두 수습되면서 수사당국의 원인 규명 수사가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2·8·9·17면 14일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인 김모씨(58)가 숨진 채 구조대에 의해 발견·수습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3분께

또 다른 매몰자였던 고모씨(68)가 중장비를 투입한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로써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4명이 모두 수습되며 구조 작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구조 단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사당국은 원청과 하청을 포함한 공사 전반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단계로 수사를 전환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13일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의 서울 본사와 광주 현장사무소를 비롯해 하청업체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 총 8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여 사고 관련 서류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붕괴 원인과 공정별 책임 소재를 단계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특히 공법 적용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 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원청과 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와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광주시는 경찰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감식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알림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합니다”

최상급 인적 네트워크 구축...전문가·교수 초청 강좌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동규
성악가



임진도
음악평론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설계해 보십시오.”

광주·전남지역 인문을 선도하는 광남일보가 정치·경제·사회·교육·금융·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원우로 초청하는 제14기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광남일보 아카데미는 저명인사 초청특강, 문화탐방, 산업시찰, 해외연수 등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간 16차례의 수준 높은 커리큘럼으로 원우 여러분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글로벌리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최상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품격 있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다양한 리더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인원 : 000명 (선착순 모집)

△교육기간 : 2026년 3월 ~ 12월 (1년 과정)

△지원자격 : 기업 최고경영인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정부기관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 법조·의료·교육·금융·벤처기업 (start up)·문화·예술·체육 등 각계 전문가

△접수마감 : 2026년 3월 13일 (금)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 (www.gwangnam.c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gnilbo2@daum.net) 접수

△개강일시 : 2026년 3월 26일 (목) 오후 6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오후 7시 (강소는 추후 공지)

△문의전화 : 광남일보 사업국 (062-370-7090)

고흥 나로우주센터, 2027년 민간 발사 가능

우주청, 발사 로드맵 공개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2027년부터 민간 기업이 상업 발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발사장으로 개장된다. 정부가 재사용발사체 확보와 심우주 탐사 능력 확장을 목표로 우주 수송 체계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이 최근 배포한 ‘2026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나로우주센터 고도화 사업과 함께 상업 발사 지원을 민간 발사장을 구축해 2027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민간 발사

서비스 시장을 열어 국내 발사체 기업의 상업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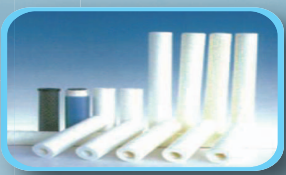
우주청은 2030년대 국가 주력 재사용 발사체 확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예비설계에 착수한다. 이와 연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궤도수송선’을 기업 주도로 개발해 신규 우주 수송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심우주 탐사 계획도 본격화된다. 누리호가 달까지 탐사선을 직접 보내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궤도수송선을 탑재해 달 궤도까지 전달하는 방식으로 2029년 달 통신 궤도선 발사가 추진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용수처리종합계통도 (Water Treatment Flow Chart)
정밀 여과장치 (Micro-Filter Housing)
백필터 시스템 (Bag-Filter System)
자외선 살균장치 (UV Sterilizer)
R/O장치 (Reverse Osmosis System)
방청 방식 장치 (Dispenser)
급속 침전 장치 (Clarifier)
압력식 여과장치 (Pressure Filter)
중력식 여과장치 (Siphon Filter)
활성탄 여과장치 (Activated Carbon Filter)
경수 연화 장치 (Water Softener)
혼상식 순수 제조장치 (Mixed Bed Deionizer)
복상식 순수 제조장치 (Two Bed Deionizer)
수중의 불순물과 처리방법
이온 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
활성탄소 (Activated Carbon)
대기중 입자 크기별 FILTER 선정
일도비교표
마이크로 필터 (Micro Filter)
Air Filter Media
Air Filter
Medium Filter
Hepa Filter
Filter Bag
Pocket Bag Filter
Air Filter의 시험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